

‘연구’ 일변도에서 교육·실천까지 종합 평가로 전환

교수업적 평가 개편

박지영 기자 kitty2988@knu.ac.kr

2014년 9월, ‘교원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시작으로 3년에 걸쳐 논의된 교수업적 평가제도 규정이 5월 29일 학교교무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정은 ▲학문분야별 특성 고려, ▲대학의 핵심가치 종합적 평가,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보상, ▲업적의 질적 차이를 고려한 평가, ▲학과·대학의 자율발전 도모, ▲교무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강조에 중점을 뒀다.

우리학교는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 수를 점차 늘려왔다. 동시에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전임교원의 책임지수를 줄여왔다. 또한 2013년 기준 타 대학 보다 7.5배 높은 250만 원의 국내논문 개재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해왔다.

2010년을 전후로 각종 국내·외 대학평가 순위는 급상승했지만, 교육 경쟁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단적인 예로 2012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계열평균 교수당 자체 연구비는 전체 평가대상 대학 중 2위였지만 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급률은 41위로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2013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철학과는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 편수는 0.5편, 교원 1인당 연구비는 약 3,400만 원 등 탁월한 연구실적을 바탕으로 최우수 학과에 선정됐다. 그러나 취업률은 26.3%, 대학원 진학률은 7.1%로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경쟁 대학 중 끌리였다. 교수의 탁월한 연구역량이 학생의 사회진출이나 진학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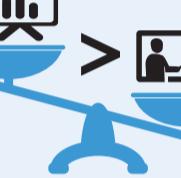
최근 들어서는 그토록 강화하던 연구 순위는 거의 제자리다. 최근 3개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 따르면 ‘계열평균 교수당 국제학술지 논문’은 2015년 9위, 2016년 9위, 2017년 7위에 자리했다. ‘국제논문 피인용지수’는 2015년 11위에서 2016년, 2017년 13위로 주춤했다. 교육여건은 더욱 떨어졌다. 2015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는 2007년 이후 최하위인 2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40위 밖), ▲강의 규모(40위 밖), ▲외부 경력 교원 비율(40위 밖) 등 교육의 질과 연관된 지표 모두 순위권 밖의 점수를 기록했다.

2014년 당시 교수업적평가제도 개편을 주도했던 박광현(공과대학) 교수는 “이전

교수업적 평가, 어떻게 바뀌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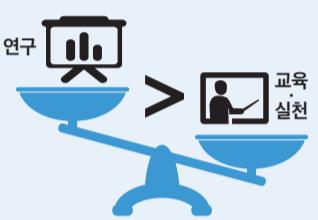
연구의 양



연구의 질



총점제



의 교수업적평가는 연구에만 치우쳐져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연구를 잘하는 교수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사정에 맞게 대학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개편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연구중심 평가 벗어나 대학 핵심가치 실현

이번 교수업적평가제도 개편의 가장 큰 골자는 연구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대학의 핵심가치인 교육·연구·실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총점제도를 새로이 도입한 것이다. 이전 제도에서는 교수 간 거의 차이 나지 않았던 교육과 실천 영역 평가 기준을 100점 만점에서 총점제로 변경한다. 교육과 실천 분야에서도 평가의 변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교무처 지储能 계장은 “모든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닌, 연구보다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등 유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교육 부분에선 의무강의시수 12학점을 초과한 강의 3학점 당 평가점수 50점을 부여하며, 최대 24시수까지 강의할 수 있게 했다. 구성원이 꾸준히 실효성 의문을 제기한 강의평가도 개선했다. 우리신문은 교수평가 300점 만점 중 40점 밖에 되지 않는 전임교원 강의평가 반영 비율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해왔다.(강의평가 낮은 실효성, 교수 교육 제도화로 해결 피한다/대학주보 제1622호 4면, 2017.06.12) 당시 국제캠퍼스 교무과 김병균 과장은 “전임교원은 교육뿐 아니라 연구와 사회봉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제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 양보다 질 '논문 질적 요소 가중치' 도입

이번 개선안에는 2회 연속 강의평가 점수 평균 80점 미만일 경우 전문가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담을 받지 않으면 폐널티를 부과함으로써 강의평가제도의 보완을 꾀했다. 또한 석, 박사 배출에도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우

리학교 졸업생들의 낮은 대학원 진학률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노력하는 교원에게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한다는 취지도 강화된다. 기준 교수 평가 등급인 S1, S2, G등급에 최상위 등급인 ‘E등급’이 추가된다. E등급과 S1등급을 받은 교수는 조·부교수 최대 2%, 정교수 최대 1% 연봉인상이 가능하다. 단, ‘논문실적이 경쟁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동일학과의 평균 보다 우수하다’는 조건을 채워야 한다. S1등급 교수는 업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업적의 질적 우수성이나 교육업적의 우수성을 입증해야 한다. 교무처 지储能 처장은 “계열에 따라 논문이 많이 나오는 곳이 있다”며 “이를 고려해 타 대학 동일학과와 비교를 넣은 것”이라고 밝혔다.

본래 4개였던 평가계열은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인문·체육, 사회, 예술·창작, 공학, 자연A, 자연B, 임상 6개로 계열로 나눴다. 교무처 지储能 처장은 “이전에는 논문을 위주로 평가해 왔으나 각 계열마다 특징이 다르다”며 “연구에만 집중할 수 없는 단위도

분명 존재한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개정을 통해 저서 또는 창작활동 또한 교원의 실적으로 인정되며, 이전 제도에서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던 산학협력활동도 크게 반영될 예정이다.

연구 또한 단지 양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질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변화한다. 지储能은 “이미 많은 경쟁대학이 연구의 질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며 “저명한 학술지에 실리는 연구를 한 교수는 그만큼 차이를 두어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교수업적평가에서는 유명무실했던 ‘논문 질적 요소 가중치’가 도입됨에 따라 피인용지수 기준 상위 30위 이내 논문에는 10배의 가중치를 적용해 최대 3000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가중치가 1.25배에서 10배 까지 비례적 넓은 범위에 걸쳐 있어 연구의 질적 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주저자의 점수 인정 비율은 상향되고, 공동저자의 인정비율은 하향되도록 조정했다. 지储能은 “이 부분은 조정의 여지가 있다”며 “공동저자로 들어가더라도 저서가 타월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정이 적용된 후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장 평가·교무위원 평가 도입 객관성 위해 근거 제출

기준에는 없던 학장 평가와 교무위원 평가도 도입됐다. 개인 중심 평가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장이 직접 소속 단과대학 교수를 평가하는 것이다. 학장은 학과 기여도와 업무실적을 고려해 단과대학 평균 50점이 되도록 소속 교수들에게 점수를 부여한다. 가중치가 1.25배에서 10배 까지 비례적 넓은 범위에 걸쳐 있어 연구의 질적 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주저자의 점수 인정 비율은 상향되고, 공동저자의 인정비율은 하향되도록 조정했다. 지储能은 “이 부분은 조정의 여지가 있다”며 “공동저자로 들어가더라도 저서가 타월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정이 적용된 후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 시에는 객관적인 근거 또한 부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과대학의 자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학장에게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교무위원 또한 부총장의 평가를 받는다. 교무위원은 학교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직기간 또한 S2등급을 보장받지만 부총장 평가를 통해 S1등급으로 상향, 혹은 G등급으로 하향될 수 있다.

평가는 객관적인 근거 또한 부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과대학의 자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학장에게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교무위원 또한 부총장의 평가를 받는다. 교무위원은 학교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직기간 또한 S2등급을 보장받지만 부총장 평가를 통해 S1등급으로 상향, 혹은 G등급으로 하향될 수 있다.

이번 교수업적평가제도 개정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던 교육과 실천에도 무게를 뒀다는 것에서 의의가 크다. 2007년도 이후 ‘연구 역량’만을 중시했던 그간의 기준에서 벗어난 개편이란 점을 높이 살만하다. 이와 더불어 교육여건이 상승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이다.

세계평화의 날 기념 평화 토론회 개최 안내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여 후마니타스칼리지와 토론통아리 이감에서 다음과 같이 세계평화의 날 기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평화 토론회 대회 예선

- 내용: UN 세계평화의 날 기념, 후마니타스칼리지 평화주간 행사 – 평화 토론회 대회 예선 개최
- 주제: 동일은 행년 세대에게 기록기, 위험인자
- 진행: 예선의 경우 직접 토론 형식이 아닌 토론회 전략으로 문건 제출 및 심사로 진행
- 분량: A4 용지 24면 이상, 저작 양식 첨부
- 접수: 2018.05.24(화)~2018.06.07(화) 17:00
- 대상: 대학부 재학인원으로 구성된 팀(1인 팀 구성)
- 접수: khsa0036@knu.ac.kr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처 헌자증 첨부)
- ※ 헌자증(부본) 및 행사 세부내용 본교 홈페이지 행사게시판 게시를 참조
- ※ 접수: 2018.6.28(목) 예정(본선 출판 8~10월 접수)

2018-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및 대상

기: 신청기간: 2018.06.01(금)~2018.07.01(일) 24:00 (한국시간)

나: 대상장학: (성적)우수, 우정, 범우(회화), 실기, 계속장학(일시/보훈/경희/가족/고시 등)

다: 신청대상: 정교학기 학부 재학생 전체

2. 신청방법

구 분

신청 방법

내용

포인트 학점부수

포인트 학점